



왕망전(王莽錢) 분포 현황으로 본 한반도 남부와 동아시아*

김지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강사

본 논문은 한반도 남부에서 출토되는 왕망전(王莽錢)을 통해 1세기 초 흉노(匈奴), 왕망(王莽)의 신(新), 고구려(高句麗), 낙랑군(樂浪郡), 한반도 남부의 관계를 동아시아 국제관계사라는 개념으로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왕망전의 경우 통용기간이 극히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많은 수량이 확인되는데, 한반도 북부나 중국 동북부의 상황과 비교할 때도 이례적이다. 왕망 정권-흉노의 전역(戰役)에서 파생된 고구려와 왕망 정권의 갈등 속에서 왕망 정권은 한반도 남부의 정치체를 주목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한(前漢)의 멸망과 신의 성립과 소멸로 이어지는 격변의 결과로 낙랑군의 군현지배는 이완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철이라는 군수물자를 확보하고 있었던 한반도 남부 정치체는 왕망 정권에게 매력적인 교섭 대상이었을 것이다. 아울러 조공 사절의 확보는 천자를 정점에 둔 비대칭적 세계를 구상했던 제국의 이상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한서(漢書)』의 대해(大海)를 건너 국진(國珍)을 바쳤다는 동아왕(東夷王)은 중국과의 교섭을 주도했던 한반도 남부 정치체의 주장일 가능성이 있으며, 한반도 남부의 왕망전은 1세기 전반 동아시아의 다층적인 국제관계망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제어 왕망전, 신, 고구려, 한반도 남부, 낙랑군

I. 머리말

문헌 자료는 역사를 복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지만, 동시에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료를 저술한 역사가가 사건을 각색 혹은 윤색하여 사실을 호도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문헌에 기록되는 것은 일상의 모습이 아니라 특수한 사건이기 때문에 선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송기호, 2017: 2). 이에 더하여 고대사로 갈수록 문헌 자료 자체가 극소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고대사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헌 사료를 보완해 주는 것이 고고학 발굴 성과라고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110701).

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1세기 초 한반도와 중국과의 관계를 문헌과 왕망전(王莽錢)이라는 고고학적 유물로 해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1세기 초 동아시아의 관계가 흉노(匈奴), 왕망(王莽)의 신(新),¹ 고구려(高句麗), 낙랑군(樂浪郡), 그리고 한반도 남부의 정치체(polity)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제관계사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함을 확인하고자 한다.

고대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국가 간 교류(交流)의 중요성은 부연할 필요가 없다.² 병존하던 각종 정치체들과 상쟁해야 했던 고대국가의 형성과정에서 확장의 주요 동력은 핵심 자원들의 장악과 운송에 있었다는 지적은 유의미하다(劉莉·陳星燦, 2006: 148). 국가 성립의 기초가 되는 핵심 자원의 교류는 초기 정치 집단의 통제 아래 보장되는 안정성의 확보로 가능했으며(Polanyi, 1963: 30), 이는 역으로 자원 및 물품의 확보와 재분배의 주체인 중앙집권화된 정치체의 탄생과 유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가 혹은 정치체별로 처한 환경조건이 다르며 기술 수준의 격차가 존재하고, 자원과 재화는 한정된 지역에서 산출된다는 희소성을 그 특징으로 가진다. 국가 간의 교류는 이러한 문제점을 평화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형성뿐만 아니라 그 유지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 사회를 연구할 때 이를 순수한 형태의 경제적 교류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물론 그 구체적인 양상은 시기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을 것이지만, 오늘날의 시각에서 유사해 보이더라도 그것은 당대에 다른 의미일 수 있다. 즉, 고대 사회에 있어서 순수한 의미의 경제적 교류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¹ 왕망이 易姓革命을 통해 新을 건국한 것은 9년의 일이지만, 이미 哀帝 元壽 2年(기원전 1)부터 輔政職에 올라 정치적 권력을 행사했으며 平帝 元始 5年(6)에는 平帝를 독살한 뒤 假皇帝(攝皇帝)를 僭稱했다. 왕망이 본격적으로 권력을 행사한 것은 늦어도 기원전 1년 이후부터 新이 멸망하는 23년까지로 이해되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왕망정권기’라는 표현도 병용한다.

² ‘교류’란 집단과 집단이 담합해서 有無를 통하게 하기 위해 물자·정보·기술 등으로 대표되는 재화를 교환하고 인간이 왕래하는 것으로 생존과 생산에 불가결한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중 집단끼리 담합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로서 ‘交涉’으로, 재화를 교환하는 것은 경제적 행위로서 ‘交易’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後藤眞, 2003: 261). 한편 이시모다 쇼(石母田正)는 이를 ‘交通’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교통’이란 경제적 측면에서는 상품교환, 유통 및 상업을 아우른 생산기술의 교류이며, 정치적 영역에서는 전쟁과 외교를 포함한 대외적인 각종 관계이자, 정신적 영역에서는 문자의 사용으로부터 법의 계승에 이르는 다양한 교류를 의미한다(1971: 20-21).

점이다(김창석, 2013: 4-5).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화폐 역시 흔히 교역의 산물 혹은 매개로서 인식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정치적·외교적 욕구의 결과일 수 있다. 서로 다른 정치체의 교류는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전혀 경제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정치적·외교적 목적이 주가 되고 경제적 이득이 부가 되는 양상이 왕왕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서 교역의 제1증거라 할 수 있는 화폐 역시 동아시아의 정치적·외교적 역학관계, 더 나아가 고대적 관점에서의 해석이 필요하다.

한반도 출토의 고대 화폐에 대해서는 크게 경제적 교역의 산물이라는 관점과 정치적 교섭의 산물인 위세품(威勢品)으로 해석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초기의 연구들이 경제적 성격을 주목했다면, 최근의 연구들은 정치적 교류의 측면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만 기존의 연구는 고대 화폐 중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통용되었던 오수전(五銖錢)에 집중되어 있고, 왕망전에 대해서는 공반 유물의 수준에서 부차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필자는 역사학계의 입장에서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확인되는 왕망전 출토 양상을 동아시아의 정치적 역학관계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해명해 보고자 한다. 다만 왕망전이 출토되는 개별 유적에 대한 분석이 아닌 1세기 전반의 역사상을 전제로, 한반도 남부에서 확인되는 왕망전의 유입 시기와 경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하여 당시 한반도의 정치체들이 동아시아적 국제질서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 갔는지를 살펴보고 초기 국가를 성립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일국사적(一國史的) 관점만으로는 해명될 수 없었던 고고학적 자료를 이용하여 한반도 남부의 정치체가 국제관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살펴봄으로써 1세기 초반 한반도의 역사상을 조망하고자 한다.

II. 한반도 남부 왕망전(王莽錢)의 분포 현황과 성격

문헌 및 유물을 바탕으로 한 역사학과 고고학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한반도 사이의 정치적 성격의 교섭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그 실정이다. 필자는 고대 사회에 있어서 현재적 의미의 경제적 교역을 상

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왕망전에 대하여 역사학계의 시각에서 이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외래 화폐라고 하면 우선 오수전을 주목할 수 있다.³ 이는 오수전 자체의 사용 기간이 길고, 사주(私鑄)가 빈번했으며, 그 발행량이 막대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화폐의 경우 주조 연대를 벗어나서도 전세(傳世)되어 오랫동안 활용·보관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한반도의 경우 중국의 공식적인 화폐 경제권 내에 소속된 지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화폐의 실제 주조 연대와 활용 연대에 시기적 격차가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남한 지역에서 발견된 오수전은 총 1,060매로 추정된다(김경철, 2008: 111; 권옥택, 2019: 7). 다만 그 성격을 명확하게 비정하기 어려운 여수 거문도 난파선에서 발견되었다고 추정되는 980매를 제외한다면,⁴ 오수전의 경우 그 통용 기간 및 발행량에 비해 극히 적은 양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화폐와 함께 부장된 물품이나, 발굴 상황 역시 오수전이 경제적 유통의 매개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다면 본고의 주제가 되는 왕망전을 살펴보자. 왕망은 가황제(假皇帝)의 지위로 섭정할 당시부터 한나라의 화폐 제도를 개혁했는데, ‘탁고개제(托古改制)’의 원칙에 따라 크게 4차례에 걸쳐 많은 종류의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한무제(漢武帝)에 의해서 수립되었던 오수전 제도가 무너진다. 다만 오수전의 경우도 전한(前漢) 말에 이르러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하고 있었다. 화폐 개주(改鑄)나 동기(銅

³ 오수전은 중앙에 방형의 구멍이 뚫린 원형의 동전으로서, ‘五銖’라는 글자가 각각 方孔의 양쪽에 새겨져 있다. 여기서 ‘銖’란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로 대략 0.65g에 해당하므로, 오수전은 3.25g의 무게를 가진 동전을 의미한다(박선미, 2010: 231-234).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유물을 보면, 최소 1.8g에서 최대 4g에 이르기까지, 그 주조 시기에 따라 다양한 무게로 확인된다(中國科學院 考古研究所編, 1959: 216-221). 오수전은 漢武帝 때 제작되어 唐高祖 시기까지 무려 700년이 넘도록 사용된 최장수 화폐로, 가장 성공한 화폐로서 평가되고 있다(蕭清, 1984: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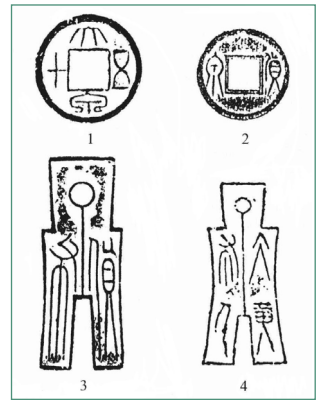
⁴ 1977년 광주시립박물관에 신고된 것은 모두 980점으로 되어 있으나, 상당량이 유출되거나 분실되어 현재는 336점만 국립광주박물관에 이관 소장되어 있다(지진길, 1990: 541).

⁵ 왕망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중국에서 흔히 확인되는 것은 대천오십, 화천, 화포 정도이며 그중에서도 대천오십과 화천이 가장 많이 확인된다(高英民·王雪農, 2008: 86-87). 중국에서의 왕망전 출토 현황에 대해서는 塩屋勝利(2011: 152-156)을 참고할 수 있다.

器)제작, 부장품(副葬品)으로 오수전이 소모되었으며,⁶ 이에 더해 세금의 전납(錢納)으로 인해 화폐의 상당량이 다시 중앙정부로 회수되면서 전황(錢荒) 현상이 심각해졌다. 이러한 동전 가치의 상승은 오수전의 경량화(輕量化) 및 위전(僞錢), 도주(盜鑄)의 상황을 가져왔으며 악순환을 반복했다. 결국 전한 후기에 이르면 쇠퇴하는 화폐경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모색되어야 했던 것도 사실이다(山田勝芳, 2000: 154-156).

왕망의 1차 개혁은 거섭(居攝) 2년(7)에 있었다. 이때 주(周)나라의 화폐제도로 고액화폐와 저액화폐를 병용하는 자모상권(子母相權)을 본받아⁷ 대전오십(大錢五十=大泉五十), 계도(契刀=契刀五百), 착도(錯刀=一刀真五千)가 발행되었다. 이 때까지는 오수전이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4종류의 화폐가 통용되었다.⁸

2차 개혁은 시건국(始建國) 원년(9)에 있었다. 이때에는 소전(小錢=小錢真一=小泉真一)을 새로 주조하였다. 또한 한 왕실의 성(姓)인 ‘유(劉)’에 ‘묘(卯)’·‘금(金)’·‘도(刀)’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허리에 차는 장식품인 강묘(剛卯)와 함께 그 이전에 주조했던 계도와 착도 및 오수전을 폐지하였다.⁹



1. 대전오십 2. 화천
3. 화포 4. 대포황천

그림 1 왕망전의 주요 종류⁵

⁶ 2016년 4월 중국 江西省 南昌 海昏侯墓(漢武帝的庶孫이자 廢帝였던 劉賀의 墓)에서는 10톤에 달하는 오수전 200만 점이 확인되었는데, 부장량이 이례적으로 많긴 하지만 전한에서 화폐를 부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이다(高一萍, 2020: 93).

⁷ 『漢書』卷24下, 食貨志 第4下, “周景王時患錢輕, 將更鑄大錢, 單穆公曰: 不可. 古者天降災戾, 於是乎量資幣, 權輕重, 以救民. 民患輕, 則爲之作重幣以行之, 於是有母權子而行, 民皆得焉. 若不堪重, 則多作輕而行之, 亦不廢重, 於是乎有子權母而行, 小大利之.”

⁸ 『漢書』卷24下, 食貨志 第4下, “王莽居攝, 變漢制, 以周錢有子母相權, 於是更造大錢, 徑寸二分, 重十二銖. 文曰大錢五十. 又造契刀錯刀. 契刀, 其環如大錢, 身形如刀, 長二寸, 文曰契刀五百, 錯刀, 以黃金錯其文, 曰一刀真五千, 與五銖錢凡四品, 並行.” 다만 대錢이나 소錢의 경우 사서상에서는 錢文을 ‘錢’이라고 표기하지만, 실제 출토된 동전이나 錢范에는 ‘泉’으로 표기되어 주의를 요한다(金少英, 1986: 281-282).

⁹ 『漢書』卷99中, 王莽傳 第69中, “赤世計盡, 終不可強濟. 皇天明威, 黃德當興, 隆顯大命, 屬予以天下. 今百姓咸言皇天革漢而立新, 廢劉而興王. 夫劉之爲字卯金刀也, 正月剛卯, 金刀之利, 皆不得行. 博謀卿士, 僉曰天人同應, 昭然著明. 其去剛卯莫以爲佩, 除刀錢勿以爲利, 承順天心, 快百姓意. 乃更作小錢, 徑六分, 重一銖, 文曰小錢真一, 與前大錢五十者爲二品, 並行. 欲防民盜鑄, 乃禁不得挾

3차 개혁은 시건국 2년(10)에 있었는데, 이것이 악명 높은 보화제(寶貨制)다. 보화제는 오물(五物: 金·銀·銅·龜·貝)과 육명(六名: 金貨·銀貨·龜貨·貝貨·泉貨·布貨)으로 만들어진 총 28품(錢貨6品+金貨1品+銀貨2品+龜寶4品+貝貨5品+布貨10品)의 화폐를 말한다. 당연히 매우 번잡하여 화폐가 제대로 통용될 수 없는 상황을 가져왔고, 이에 대전과 소전을 제외한 화폐는 사용이 정지되었다.¹⁰

왕망의 마지막 화폐 개혁은 천봉(天鳳) 원년(14)에 있었다.¹¹ 다시 금(金)·은(銀)·귀(龜)·패(貝)의 화폐를 발행하였고, 대전과 소전을 폐지하고 화천(貨泉)과 함께 그 가치가 화천의 25매와 같은 화포(貨布)를 발행하였다.¹² 또한 문헌 기록에는 확인되지 않지만 포천(布泉)이라는 화폐도 확인되는데, 한묘(漢墓)에서 출토되었다는 발굴 상황과 포천의 거푸집의 글자와 화천의 서체가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화천과 가까운 시기에 주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蕭清, 1984: 120).

왕망정권기 단기간이라도 통용되었던 법정화폐는 무려 30종류가 넘는다. 이때 실시한 화폐제도는 대전과 소전이 병용되었기 때문에 구분이 어려웠고, 무엇보다도 여러 차례 바뀌는 바람에 화폐의 신용이 크게 떨어졌다. 이에 더해 대전

銅炭.”; 『漢書』卷24下, 食貨志 第4下, “莽即真, 以爲書劉字有金刀, 乃罷錯刀契刀及五銖錢.”

¹⁰ 『漢書』卷24下, 食貨志 第4下, “而更作金銀龜貝錢布之品, 名曰寶貨. 小錢徑六分, 重一銖, 文曰小錢真一. 次七分, 三銖, 曰小錢一十. 次八分, 五銖, 曰幼錢二十. 次九分, 七銖, 曰中錢三十. 次一寸, 九銖, 曰壯錢四十. 因前大錢五十, 是爲錢貨六品, 真各如其文. 黃金重一斤, 真錢萬. 朱提銀重八兩爲一流, 真一千五百八十. 它銀一流真千. 是爲銀貨二品. 元龜距冉長尺二寸, 真二千一百六十, 爲大貝十朋. 公龜九寸, 真五百, 爲壯貝十朋. 侯龜七寸以上, 真三百, 爲小貝十朋. 子龜五寸以上, 真百, 爲小貝十朋. 是爲龜寶四品. 大貝四寸八分以上, 二枚爲一朋, 真二百一十六. 壯貝三寸六分以上, 二枚爲一朋, 真五十. 小貝二寸四分以上, 二枚爲一朋, 真三十. 小貝二寸二分, 二枚爲一朋, 真十. 不盈寸二分, 漏度不得爲朋, 率枚真錢三. 是爲貝貨五品. 大布次布弟布壯布中布差布厚布幼布小布. 小布長寸五分, 重十五銖, 文曰小布一百. 自小布以上, 各相長一分, 相重一銖, 文各爲其布名, 真各加一百. 上至大布, 長二寸四分, 重一兩, 而真千錢矣. 是爲布貨十品. 凡寶貨五物, 六名, 二十八品. …莽知民愁, 乃但行小錢真一, 與大錢五十, 二品並行, 龜貝布屬且寢.”

¹¹ 한편 『漢書』卷99中, 王莽傳에는 地皇 元年(20)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

¹² 『漢書』卷24下, 食貨志 第4下, “天鳳元年, 復申下金銀龜貝之貨, 頗增減其賈真. 而罷大小錢, 改作貨布, 長二寸五分, 廣一寸, 首長八分有奇, 廣八分, 其圓好徑二分半, 足枝長八分, 間廣二分, 其文右曰貨, 左曰布, 重二十五銖, 真貨泉二十五. 貨泉徑一寸, 重五銖, 文右曰貨, 左曰泉, 枚真一, 與貨布二品並行. 又以大錢行久, 罷之, 恐民挾不止, 乃令民且獨行大錢, 與新貨泉俱枚真一, 並行盡六年, 毋得復挾大錢矣. 每壹易錢, 民用破業, 而大陷刑.”

이 곧 폐지될 것이라는 유언비어까지 퍼져, 결국 민간에서는 은밀하게 오수전을 이용하여 교역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왕망은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오수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정전제(井田制)를 비방하는 죄에 준하여 사예(四裔)로 쫓아버리는 형벌을 내릴 것을 공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전과 대전을 제외한 전폐(錢弊)가 유통되지 않았고, 사주(私鑄)를 막지 못하여 법만 더욱 엄격해지는 상황이 되었다. 관리와 백성들은 왕망전의 소지를 강요당했는데,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억류당하기까지 했고, 1가(家)가 사주한 것을 알고도 관리와 5가의 이웃이 검거하거나 고발하지 않으면 연좌되어 가산이 몰수되고 노비가 되는 처분을 받았다. 보화를 비방하기만 해도 1년 동안 노역형에 처해졌고, 관리는 면직되어 근심과 걱정으로 고생하다 사망한 사람이 10명 가운데 6~7명이 되었다는 상황은 왕망 주전의 폐해를 확인케 한다.¹³

지금까지 왕망전의 발행 상황을 살펴보았다. 사실 왕망의 화폐 제도는 대천오십(大泉五十), 화천, 화포 정도를 제외하고는 결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중국에서의 발굴 상황 역시 이를 반영한다. 중국의 상황과 유사하게 한반도에서도 화천, 대천오십이 가장 많이 확인되며, 그중에서도 화천이 대다수인데, 이는 화천의 유통기간이 비교적 길었고, 다른 왕망전에 비해 중량과 화폐가치가 합리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화천의 경우 명칭만 다를 뿐 오수전의 회복으로 평가되었다(張誠, 1993: 20-21; 임중혁, 1995: 28-29). 한반도 남부 왕망전의 출토 현황과 분포는 표 1 및 그림 2와 같다.

왕망전의 경우 왕망이 세운 신(新)이 20년도 존속하지 못했고, 건국 이후에도 잇달아 반란이 일어나는 등 국가 정세가 매우 혼란했음에도 거문도 발견 오수

¹³ 『漢書』卷99中, 王莽傳 第69中, “是時百姓便安漢五銖錢, 以莽錢大小兩行難知, 又數變改不信, 皆私以五銖錢市買. 譎言大錢當罷, 莫肯挾. 莽患之, 復下書: 諸挾五銖錢, 言大錢當罷者, 比非井田制, 投四裔. 於是農商失業, 食貨俱廢, 民人至涕泣於市道. 及坐賣買田宅奴婢, 鑄錢, 自諸侯卿大夫至于庶民, 抵罪者不可勝數.”; “百姓不從, 但行小大錢二品而已. 盜鑄錢者不可禁, 乃重其法, 一家鑄錢, 五家坐之, 沒入爲奴婢. 吏民出入, 持布錢以副符傳不持者, 廚傳勿舍, 關津苛留. 公卿皆持以入宮殿門, 欲以重而行之.”; 『漢書』卷24下, 食貨志 第4下, “每壹易錢, 民用破業, 而大陷刑. 莽以私鑄錢死, 及非沮寶貨投四裔, 犯法者多, 不可勝行, 乃更輕其法: 私鑄作泉布者, 與妻子沒入爲官奴婢; 吏及比伍, 知而不舉告, 與同罪; 非沮寶貨, 民罰作一歲, 吏免官. 犯者俞衆, 及五人相坐皆沒入, 郡國檻車鐵鎖, 傳送長安鍾官, 愁苦死者什六七.”

표 1 한반도 남부 출토 왕망전의 현황¹⁴

출토 지역	종류	수량(매)	출토지 성격
김해 회현리	貨泉	1	패총
제주 종달리	貨泉	1	패총
제주 금성리	貨泉	2	주거지
제주 산지항	貨泉	11	제의
	貨布	1	
	大泉五十	2	
傳제주도	貨泉	5	미상
	大泉五十	5	
해남 군곡리	貨泉	1	패총
해남 흑천리	貨泉	13	분묘
나주 랑동	貨泉	2	기타
광주 복룡동	貨泉	49?	분묘
傳경주 황남대총 ¹⁵	貨泉	1	분묘
부여 석목리	大泉五十	1	기타
장흥 평화리	大布黃千	1	수혈
		94	

전을 제외하면 오히려 오수전보다 많은 양이 확인된다. 중국과 한반도 남부라는 지리적 격절과 극히 짧은 유통기간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며, 이는 한반도 남부 출토 왕망전을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중국 동북 및 한반도 북부에서도 왕망전의 출토가 확인되지만(김경철, 2008: 51-54; 박선미, 2013a: 109-112; 박지희, 2018: 79-82), 한반도 남부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오수전의 수량이 압도적이며 왕망전의 경우 수량 측정에 큰 의미가 없을 정도

¹⁴ 이주현(2014: 56-57), 권옥택(2019: 9), 김미도리 외(2020). 일본에서의 왕망전 출토 현황 및 연구 경향에 대해서는 권옥택(2019)를 참고할 수 있다.

¹⁵ 다만 경주 황남대총 남분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화천의 경우 황남대총의 축조 시기를 고려할 때 傳世品임이 확실하므로, 그 성격을 논의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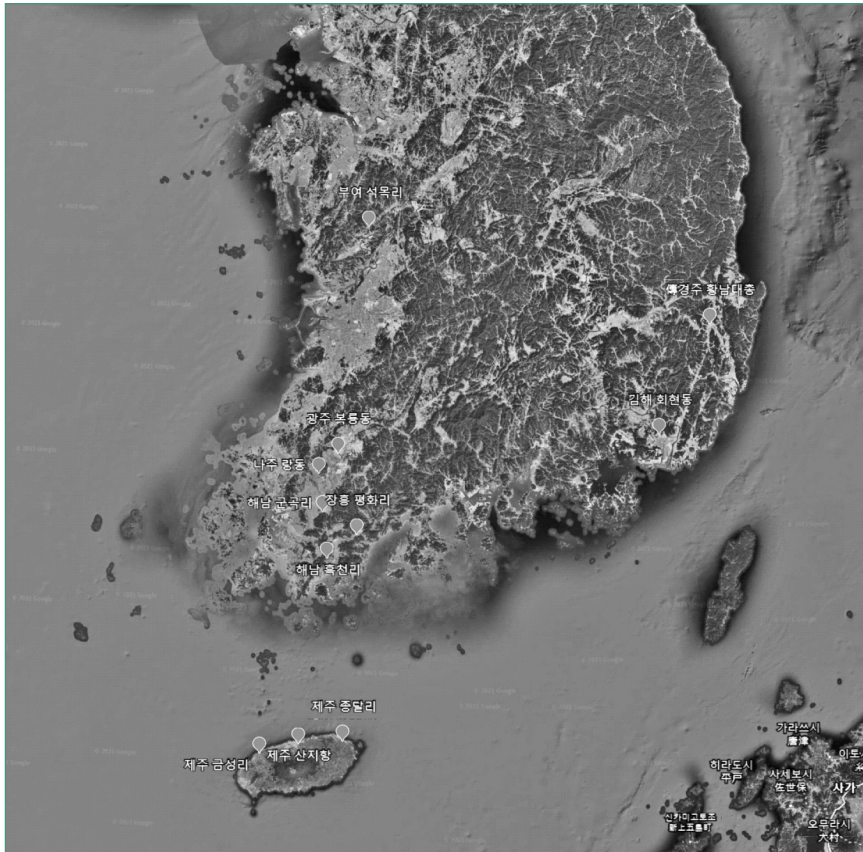


그림 2 한반도 남부 출토 왕망전의 분포

의 수준이 확인되는데, 사실 이는 오수전과 왕망전의 존속 시기를 고려할 때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란이나 유사시를 대비한 화폐 은닉이 목적인 퇴장매납(退藏埋納)과 관련한 유물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고구려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박선미, 2013b: 113).

한편 왕망전만 단독으로 확인되는 경우보다 오수전과 왕망전이 함께 출토되는 양상을 보여 주는 경우가 많은데, 사례 자체가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한반도 남부 출토 왕망전의 경우 단독으로 출토되는 사례가 확인되는 점이 흥미롭다. 이와 더불어 오수전과 비교할 때 한반도 남부 왕망전의 경우 출토 중심지

가 해안 지역 혹은 해안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하는데(권옥택, 2019: 10), 일본의 사례에서도 해촌(海村)의 일상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중국 화폐가 분포하고 있다는 점은(武末純一, 2009: 294-299),¹⁶ 해로(海路)를 통한 교류를 상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왕망전의 성격과 관련하여 “이민(吏民)의 출입 시, 포전을 소지하고 이로써 부전(符傳)에 맞추었다. 이를 소지하지 않은 자는 주포(廚鋪)나 역전(驛傳)을 이용할 수 없었으며, 관진(關津)에 억류되었다.”라는 기사가 주목된다.¹⁷ 한대(漢代)에는 지역 간의 교류나 개인의 사적인 이동이 불가하지는 않았다. 다만 모든 제민(齊民)의 소재를 국가가 파악하고 이들의 불법적인 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따라서 본적지를 떠나 이동하는 자는 반드시 관(官)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했고, 각 지역의 과소(過所)에서는 통행자를 검문하여 불법적 이동을 통제했는데, 「이년율령(二年律令)」 진관령(津關令)에 자세한 규제 내용이 전한다(송진, 2005: 76, 80-82). 변세의 관진은 물론 내지의 관진 역시 엄격하게 통제되었으며, 제민의 국내 이동뿐만 아니라 외국 상인들의 자유로운 상행위 역시 금지되었는데, 이는 철(鐵), 금(金), 마(馬) 등의 주요 물자가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김병준, 2011a: 1401; 송진, 2020: 190-193). 이러한 상황에서 왕망전으로 하여금 부전을 대신하게 하였다는 것은 곧, 한반도 남부의 왕망전을 왕망 정권과 한반도 남부 정치체의 교섭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특히 왕망전이 주로 해안 지역을 따라 분포하고 있다는 것은 외부와의 교섭 가능성을 높이는 조건이다.

일본열도 및 한반도 남부 출토의 왕망전에 관해서는 최근에 분석이 이루어졌다. 해당 연구에서는 화천의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미 많은 양이 주조된

16 다케스에 준이지(武末純一)는 이를 위세품이 아닌 교역의 결과물로 이해하고, 상충부의 쓰쿠시(ツクシ) 정권과 조선-중국과의 공식적인 외교활동과 해촌의 일상생활 영역에서 전개된 경제적인 교역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왕망전 수량 역시 교역의 결과로 이해하기에는 지나치게 소량이며, 절대 다수의 사례가 화천이라는 고액 화폐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화폐가 가지는 위세품으로서의 독특한 성격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17 『漢書』卷99中, 王莽傳 第69中, “吏民出入, 持布錢以副符傳. 不持者, 廚傳勿舍, 關津苛留.” 이외에도 특수한 사례이나 화폐가 信物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宋史』卷369, 列傳 第128, 劉光世, “乃鑄金銀銅錢, 文曰招納信寶. 獲敵不殺, 令持錢文示其徒, 有欲歸者, 扣江執錢爲信.”).

화천이 낙랑과 후한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화폐의 본래 목적에서 용도가 변화한 채 많은 양의 왕망전이 유입되었다고 이해하였다(古澤義久, 2011: 38-42; 2015: 4-5).¹⁸ 왕망전의 고액화폐들이 출입증이나 허가증으로 사용되었고, 낙랑에서 대외교역에 한하여 대내시장용 오수전과 대외교역용 왕망전을 의도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의 경우 의도적 훼손이 있었다고 파악하고 이를 항해를 위한 기원행위에 사용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권옥택, 2018; 2019). 즉, 왕망전의 주조 주체는 왕망 정권이었지만, 그것의 외국으로의 전달 주체 및 시점을 낙랑군과 후한으로 이해하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왕망전이 교환의 도구가 아니며 위세품에 가까웠고, 화폐의 본래 목적을 떠나 출입증이나 허가증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시점을 신(新) 멸망 이후, 즉 후한 시기의 낙랑군으로 이해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중앙정부가 보증하는 신용만으로 가치를 보장받는 현대의 화폐와 달리 고대의 화폐는 원칙적으로 등가의 금속화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를 녹여 재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전한은 금전병행본위(金錢並行本位)를 채택하였는데, 전한 후기가 되면 동(銅)의 생산량 감소 및 금(金)의 유출로 인해 동전의 가치 상승이 일어나 금을 대신하는 재화로서 화폐의 퇴장(退藏)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정련기술의 미숙과 광산의 고갈로 인해 동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동에 대한 국가적 규제가 더욱 강력해졌는데, 중국 역사상 최초로 동의 소유에 대한 금령(禁令)이 발표되었던 것이 바로 시건국 원년(9)이었다(山田勝芳, 2000: 147-150, 170). 즉, 금속화폐의 경우 극단적인 상황에서 액면가치가 사라져도 금속 자체로서의 소재가치까지 훼손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화폐의 본질적 용도로서 소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용도 폐기된 화폐를 ‘소비’하는 것은 그리 큰

¹⁸ 후루사와 요시히사(古澤義久)는 일본에서 출토되는 왕망전의 출토 양상이 중국에서 교역의 도구로서 사용된 것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화폐유통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화폐의 구성 비율이 동시기 중국의 균현인 낙랑군·대방군·요동군·현도군과 일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는 대량의 꾸러미 형태(緡錢)로 출토되며 일반적으로 꾸러미 형태는 화폐 유통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출토 양상이 일부 유적을 제외하고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왕망전은 유통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별된 수출품 그 자체라고 이해하였다. 한국 역시 복통동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꾸러미 형태의 화폐가 출토된 바가 없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정되어 있는 액면가치보다 소재가치가 높아지는 경우 백성들이 화폐를 녹이거나 혹은 화폐의 가장자리를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확인되며, 경전(輕錢)과 중전(重錢)을 구분하여 화폐 단위가 아닌 금속의 무게 단위로 계산하기도 하였다.¹⁹ 이에 따라 시장에 통용이 가능한 동전이라 할지라도 화폐의 질에 따라 행전(行錢)과 구전(具錢)으로 명확히 구분되었다. 정부가 동전에 외곽선을 둘러 금속 중량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행전과 구전의 취사선택을 금지했던 것은 화폐가 가지고 있었던 금속으로서의 가치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용도 폐기된 왕망전을 처리하기 위한 낙랑군의 의지라면 낙랑군이 존재했던 서북한 지역에는 최소한 한반도 남부와 일본보다 많은 양의 왕망전이 확인되어야 하며,²⁰ 왕망 정권과 낙랑군의 안정적인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발굴 결과를 고려하면 낙랑군이 소재했던 서북한 지역보다 한반도 남부와 일본에서 출토되는 왕망전의 수량이 더 많으며, 후술하겠지만 왕망정권기 변군으로서의 낙랑군은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필자는 이러한 고고학적 상황에 착안하여 결국 한반도 남부와 일본에 왕망전이 전달된 시점과 주체는 후한 시기의 낙랑군이 아니라, 왕망정권기 중앙정부라고 생각하며 그 원인에 대해서는 고구려와 왕망 정권과의 관계에서 파생된 결과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

19 『漢書』卷24下, 食貨志 第4下, “今半兩錢法重四銖, 而姦或盜摩錢質而取鉛, 錢益輕薄而物.”; “又民用錢, 郡縣不同: 或用錢輕, 百加若干; 或用重錢, 平稱不受.” 또한 후대의 사례이나 『宋史』錢幣條의 “10전을 녹이면 靑銅 1냥을 얻는데, 그것으로 銅器를 만들면 5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銷鎔十錢得精銅一兩, 造作器用, 獲利五倍)”는 기사는 금속화폐가 가지는 성격을 잘 보여 준다.

20 王培新은 大泉五十 陶范을 낙랑토성 출토 유물로 분류하고 있으나(王培新, 2008: 225), 해당 錢范은 傳 평양 출토라고만 전해진다. 錢范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낙랑군 역시 왕망전의 주조 주체일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대량의 주조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낙랑군에서 출토되는 화폐가 지나치게 적으며, 화폐를 주조하기 위해서는 원료인 銅의 지속적인 공급을 필요로 하는데, 평양 주변에는 銅鑛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왕망정권기 낙랑군에서 실제 주전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주저된다. 결국 중앙정부 혹은 주변 군현에서의 공급을 상정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낙랑군에서의 왕망전 출토 현황을 보면 화폐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III. 고구려(高句麗)-신(新) 갈등과 1세기 전반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

한국학계에서는 왕망 정권과 고구려의 관계에 대한 단독 연구가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²¹ 중국학계에서도 단편적인 연구 성과만을 확인할 수 있다(耿鐵華, 2002: 140-145; 李大龍, 2003; 李爽, 2017: 28-29). 이는 신(新)의 존속 기간(9~23)이 매우 짧았으며, 문헌에 기록된 왕망 정권과 고구려의 관계가 소략하고, 사서에 따라 그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는 측면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해당 시기의 연구는 초기 고구려의 대외관계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다루어졌을 뿐인데, 시각을 달리하여 한반도 남부에서 확인되는 왕망전과 연계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1세기 전반의 국제 정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왕망 정권-홍노의 갈등관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경녕(竟寧) 원년(기원전 33) 화번공주(和蕃公主)를 통해 한선제(漢宣帝)와 호한야선우(呼韓邪單于) 사이에 맺어졌던 한과 홍노의 우호 관계는 장기간 유지되지 못했다. 왕망과 홍노의 본격적인 갈등은 왕망이 만들었던 4개의 조약으로부터 시작된다.²² 물론 그 이전부터 오손(烏孫)의 인질 방환 문제를 둘러싼 한과 홍노의 갈등이 확인되지만,²³ 왕망이 황제가 된 이후 그의 대(對)홍노 정책은 더욱 강압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국 홍노는 신(新)의 변군(邊郡)을 침범하며 관리와 백성을 죽이고 노략질하는 것으로 반발하였으며, 그 결과 왕망이 징집한 12부의 군단이 오랜 기간 변세에 주둔함에 따라 북방 변경지대 주민

21 왕망 정권과 고구려의 관계는 漢과 고구려의 관계에서 부수적으로 다루어졌을 뿐 양자의 정치적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 성과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김한규, 1982; 김광수, 1983; 권오중, 2002; 여호규, 2007; 이준성, 2011; 여호규, 2014). 다만 최근에 고구려와 신의 관계를 다룬 단독 논문이 발표되었다(김효진, 2020).

22 『漢書』卷94下, 匈奴傳 第64下, “乃造設四條: 中國人亡入匈奴者, 烏孫亡降匈奴者, 西域諸國佩中國印綬降匈奴者, 烏桓降匈奴者, 皆不得受. 遣中郎將王駿王昌副校尉甄阜王尋使匈奴, 班四條與單于, 雜函封, 付單于, 令奉行, 因收故宣帝所爲約束封函還.”

23 『漢書』卷94下, 匈奴傳 第64下, “至哀帝建平二年, 烏孫庶子卑援寔翁侯人衆入匈奴西界, 寇盜牛畜, 頗殺其民. 單于聞之, 遣左大當戶烏夷泠將五千騎擊烏孫, 殺數百人, 略千餘人, 馱牛畜去. 卑援寔恐, 遣子趨遠爲質匈奴. 單于受, 以狀聞. 漢遣中郎將丁野林副校尉公乘音使匈奴, 責讓單于, 告令還歸卑援寔質子. 單于受詔, 遣歸.”

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만 갔다.

한편 왕망 정권과 흉노의 대립은 고구려와 왕망 정권의 갈등을 촉발하였다. 시건국 4년(12) 왕망의 파병 요청을 고구려가 거부하며 오히려 신(新)의 군현을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왕망 정권과 고구려의 파병 요청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한서』 왕망전을 비롯하여 『후한서』동이열전, 『삼국지』동이전 고구려조, 『자치통감(資治通鑑)』한기(漢紀) 등을 참고할 수 있고, 국내 사서에는 『삼국사기』고구려본기 유리왕 31년조에 실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⁴ 이 과정에서 신(新)의 요서대윤(遼西大尹) 전담(田譚)이 고구려군의 공격에 대응해 사망하자 신(新)은 엄우(嚴尤)를 파병하여 고구려를 공격하였고, 그 결과 고구려후(高句麗侯) 추(騶) 혹은 고구려 장수 연비(延丕)가 사망하였다.²⁵

²⁴ ① 『漢書』卷99中, 王莽傳 第69中 始建國 4年條, “先是, 莽發高句麗兵, 當伐胡, 不欲行, 郡強迫之, 皆亡出塞, 因犯法爲寇. 遼西大尹田譚追擊之, 爲所殺. 州郡歸咎於高句麗侯騶, 嚴尤奏言: 貉人犯法, 不從騶起, 正有它心, 宜令州郡且尉安之. 今猥被以大罪, 恐其遂畔, 夫餘之屬必有和者. 匈奴未克, 夫餘穢貉復起, 此大憂也. 莽不尉安, 穢貉遂反, 詔尤擊之. 尤誘高句麗侯騶至而斬焉, 傳首長安. 莽大說, 下書曰: … 今年刑在東方, 誅貉之部先縱焉. 捕斬虜騶, 平定東域, 虜知殄滅, 在于漏刻 … 予甚嘉之. 其更名高句麗爲下句麗, 布告天下, 令咸知焉. 於是貉人愈犯邊, 東北與西南夷皆亂云.”

② 『後漢書』卷85, 東夷列傳 高句麗條, “王莽初, 發句麗兵以伐匈奴, 其人不欲行, 疆迫遣之, 皆亡出塞爲寇盜. 遼西大尹田譚追擊, 戰死. 莽令其將嚴尤擊之, 誘句麗侯騶入塞, 斬之, 傳首長安. 莽大說, 更名高句麗王爲下句麗侯, 於是貉人寇邊愈甚. 建武八年, 高句麗遣使朝貢, 光武復其王號.”

③ 『三國志』卷30, 魏書 東夷傳 高句麗條, “王莽初發高句麗兵以伐胡, 不欲行, 疆迫遣之, 皆亡出塞爲寇盜. 遼西大尹田譚追擊之, 爲所殺. 州郡縣歸咎於句麗侯騶, 嚴尤奏言: 貉人犯法, 罪不起于騶, 且宜安慰. 今猥被之大罪, 恐其遂叛. 莽不聽, 詔尤擊之. 尤誘期句麗侯騶至而斬之, 傳送其首詣長安. 莽大悅, 布告天下, 更名高句麗爲下句麗. 當此時爲侯國, 漢光武帝八年, 高句麗王遣使朝貢, 始見稱王.”

④ 『資治通鑑』卷37, 漢紀29 王莽, “始建國四年, 莽又發高句麗兵擊匈奴, 高句麗不欲行, 郡強迫, 皆亡出塞, 因犯法爲寇. 遼西大尹田譚追擊之, 爲所殺. 州郡歸咎於高句麗侯騶, 嚴尤奏言: 貉人犯法, 不從騶起, 正有他心, 宜令州郡且尉安之. 今猥被以大罪, 恐其遂畔, 夫餘之屬必有和者. 匈奴未克, 夫餘穢貉復起, 此大憂也. 莽不尉安, 穢貉遂反, 詔尤擊之. 尤誘高句麗侯騶至而斬焉, 傳首長安. 莽大說, 更名高句麗爲下句麗. 於是貉人愈犯邊, 東北與西南夷皆亂.”

⑤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瑠璃明王 31年條, “漢王莽發我兵伐胡. 吾人不欲行, 強迫遣之, 皆亡出塞, 因犯法爲寇. 遼西大尹田譚追擊之, 爲所殺, 州郡歸咎於我. 嚴尤奏言: 貉人犯法, 宜令州郡, 且尉安之. 今猥被以大罪, 恐其遂叛. 扶餘之屬, 必有和者, 匈奴未克, 扶餘穢貉復起, 此大憂也. 王莽不聽, 詔尤擊之. 尤誘我將延丕斬之, 傳首京師兩漢書及南北史皆云, 誘句麗侯騶, 斬之. 莽悅之, 更名吾王爲下句麗侯, 布告天下, 令咸知焉. 於是, 寇漢邊地愈甚.”

²⁵ 사건의 전말에 대한 大要는 큰 차이가 없으나, 엄우의 공격으로 인해 사망한 대상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중국측 사료에서는 엄우가 고구려를 공격하여 고구려후 추를 살해한 후 그 수급을 長安

우선 지적할 점은 왕망이 군내(郡內)의 고구려인을 징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이성제, 2011: 304-305). 이들은 징발을 거부하며 ‘출새(出塞)’하였으며, 고구려후 추의 존재를 통해 새외(塞外) 고구려인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각 주군(州郡)에서 이들의 변절이 고구려후 추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였는데, 이를 볼 때 새(塞)를 경계로 그 안과 밖 모두 고구려, 혹은 그 영향권 아래의 주민들이 존재했다. 왕망은 오위장(五威將)을 동서남북의 각국에 파견하였는데, 이때 “至玄菟·樂浪·高句驪·夫餘”라는 표현을 보면 현도군과 고구려가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이 역시 현도군 소속 고구려현이 아닌 독립된 정치체로서의 고구려의 존재를 확인케 해 준다(윤용구, 2006: 13; 2008: 120; 여호규, 2007: 22; 김효진, 2020: 211).

『삼국지』 동이전 고구려조에 의하면 고구려와 중국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후한 광무제(光武帝) 연간으로, 고구려와 신(新)의 관계는 신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회복되지 못했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유리왕 33년(14) 기사를 통해서도 방증된다.²⁶ 고구려후 추 혹은 고구려 장수 연비가 사망한 지 불과 2년 뒤에 고구려는 양맥(梁貊)뿐만 아니라 제2현도군의 수현(首縣)이었던 고구려현을 공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해당 연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가 논의되어야겠지만, 양맥 토벌이나 현도군 공격 직전 고

에 보냈다고 되어 있는 반면, 『三國史記』에는 我[高句麗]將 延丕가 참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三國史記』의 찬자도 중국 사서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문에 삽입하고 세주를 이용하여 중국 사서의 기록을 부기한 것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전승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엄우의 공격으로 인해 사망한 인물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고구려왕은 琉璃였기 때문에 이를 유리로 이해하거나 高句麗將 연비로 이해한다. 이 밖에도 고구려왕을 가리키는 君長的 칭호로 이해하는 견해(김광수, 1983: 71-76), 朱蒙으로 보는 견해(강종훈, 2020), 沸流國 松讓의 후손이자 고구려현의 縣侯로 보는 견해(박찬규·문성휘, 2021), 고구려후 추와 연비를 동일 인물로 보고 이를 涓奴部 출신 國主로 보는 견해(이준성, 2011: 38-39), 고구려가 중국과의 교섭을 위해 내세운 인물로, 중국과 고구려의 입장 차이에 따라 異名으로 기록되었다고 이해하는 견해(김효진, 2020)가 있다. 중국 측 사서에서 고구려후로 표현된 것을 보았을 때, 고구려의 국왕은 아니지만 部를 대표하는 수준의 유력 세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고구려의 국내 전승이 사서로서 정리되는 시점에 독립적인 부의 대표가 아닌 고구려의 왕권에 종속된 장군으로 變改된 것이 아닐까한다.

²⁶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1, 瑠璃明王 33年條, “秋八月, 王命烏伊摩離, 領兵二萬, 西伐梁貊, 滅其國. 進兵襲取漢高句麗縣屬玄免郡.”

고구려왕이 사망했다면 전쟁 수행이 불가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고구려는 전쟁 수행을 위해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하고 있는데,²⁷ 중화적 세계질서 구현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외번(外蕃)의 설정, 그리고 더 나아가 외번의 군현화에 있었다면, 고구려왕을 살해했음에도 고구려의 멸망과 군현 설치라는 직접 지배로 이어지지 않고 고구려의 왕호(王號)와 국호(國號)를 낮추는 조치로 만족한 것은 이때 사망한 고구려후 추가 고구려의 국왕이 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이후 후한 광무제 건무(建武) 8년(32) 조공사절을 파견할 때까지 고구려는 중국이 주도하는 조공체제에서의 이탈을 선택했다.

이러한 점에서 고구려와 현도군의 교섭 창구였던 책구루(幘溝婁)가 주목된다. 책구루의 설치 시점에 대한 통설적인 견해는 태조왕 시기로 이해하는 것이다(노태돈, 1999: 118-121). 그러나 기원 이후 고구려의 교섭 범위는 현도군이 감당할 단계를 벗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책구루는 현도군을 통해 고구려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던 초기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는 견해가 새롭게 제기되었다. 최소한 왕망 이후의 고구려의 교섭범위는 요동·낙랑·현도군을 넘어 고구려의 필요에 따라 다변적으로 운용되었으며, 책구루는 고구려 건국 초기의 한시적인 교섭수단이자 일종의 침묵교역을 보여 주는 호시(互市)였다는 것이다(윤용구, 2006: 15-23; 2008: 124-130).²⁸ 또한 책구루의 설치 주체는 현도군이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교만방자하여 군에 오지 않았음에도 조복(朝服)과 의책(衣幘)을 가져가게 했다는 점에서 이는 고구려보다는 현도군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다는 견해도 확인된다

²⁷ 물론 1세기 전반 고구려가 2만의 군대를 동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뒤늦은 시기인 태조왕 69년(121) 봄 현도군과 요동군을 공격하는 데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하였다는 기사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경우에는 幽州刺史 馮煥, 玄菟大守 姚光, 遼東大守 蔡諷 등이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선제공격했기 때문에 현도군과 요동군에 군사적 공백이 있었을 것이고, '몰래[潛]' 3,000명을 보내어 2군을 공격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게릴라식 습격에 가까운 공격이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사서에서 확인되는 1~2세기 고구려의 병력동원 규모를 볼 때 2만이라는 숫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고구려가 예맥 제족을 동원했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군사력이 수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²⁸ 다만 책구루를 互市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김창석은 책구루에서 확인되는 모습을 교역이라기보다는 이전 시기부터 행해지던 朝服과 衣幘 등을 매개로 한 외교적 물품 교환행위의 연장으로 이해하였다. 일부 경제적 교역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책구루의 기본 기능은 외교적 예물을 교환하는 것이었고, 교역은 부가 기능에 불과했다는 것이다(2013: 131-134).

(박노석, 2015: 40).

대외교섭권의 일원화를 의미하는 책구루의 설치 시점을 소급하는 최근의 견해를 취한다면, 고구려는 일찍부터 예하의 정치집단들에 대해 일정 정도의 구심력을 발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고구려후 추를 처벌할 경우, 예택과 부여가 흥기할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위안(尉安)할 것을 주장한 엄우의 상주이다. 이는 고구려후 추의 영향력이 현도군 내의 고구려현뿐만 아니라, 새외의 고구려인, 그리고 더 나아가 예택으로 대표되는 동이제족(東夷諸族)에 계까지 미치고 있음을 중국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²⁹ 이후 “맥인(貊人)들이 더욱 변방을 범하니 동북(東北)과 서남이(西南夷)가 모두 어지러웠다.”라는 기사는 고구려의 영향력이 상당했음을 방증한다. 엄우가 우려한 바는 실제로 재현되어, 부여와 예택이 흥기하여 변경을 침범하는 빈도만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사료상에 보이는 고구려후 추는 고구려의 왕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왕호와 국호의 변경 외에 고구려가 쇠약해진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후 고구려는 집요하게 중국의 변경을 공격하였다. 결국 흉노라는 주적(主敵)을 상대해야 하는 왕망 정권의 입장에서 고구려의 존재는 전선을 확대시키는 새로운 압박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주변의 제민족들이 중국에 대항하여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이미 제1현도군의 경우 기원전 75년을 전후하여 ‘이맥(夷貊)’의 침입으로 인해 고구려 서북방면으로 이치(移置)된 상태였으며,³⁰ 이는 고구려로 대표되는 동이 제민족들의 성장을 보여 준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동이 제민족들은 고구려를

²⁹ 이노우에 히데오(井上秀雄)는 4세기 이전의 고구려왕은 고구려 전체의 책임자가 아니라 각각의 지역 기반을 가진 귀족들에게 응립된 존재로서, 군사 면에 있어서도 고구려군 전체의 통제권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비록 실권이 없더라도 각 민족에게 있어서王者의 존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권위가 있었으며, 엄우는 그러한王者의 권위를 훼손했을 때 일어나는 이민족의 반란에 대해 왕망 정권이 쉽게 대처할 수 없었음을 감지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당시 이민족의王者들은 각 민족 내부의 권위뿐만 아니라 국제적 유대를 이루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1983: 29-30).

³⁰ 『後漢書』卷85, 東夷列傳 東沃沮條, “武帝滅朝鮮, 以沃沮地爲玄菟郡. 後爲夷貊所侵, 徙郡於高句驪西北, 更以沃沮爲縣, 屬樂浪東部都尉.”; 『漢書』卷7, 昭帝紀 第7, “元鳳六年春正月, 募郡國徒築遼東玄菟城.”

중심으로 결집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삼국사기』에 산재된 주변 소국들에 대한 정복기사는 고구려가 고대국가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엄우의 상주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간파한 것이었다. 즉 흥노라는 주적에 더해 고구려를 비롯한 그 영향권 아래의 동이 제민족의 반발이 왕망 정권에게 주어진 과제였다. 이러한 상황이 신에게는 새로운 동맹 관계의 모색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여겨진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1세기 전반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라는 거시적 틀에서 왕망전을 해석해 보고자 한다.

IV. 동아시아사 속의 한반도 남부 왕망전의 의미

한반도 남부에서 확인되는 중국의 고대 화폐에 관련한 일차적인 주목 대상은 당연히 한사군(漢四郡)이라고 할 수 있다. 한사군 시기 기존 교역 관련 연구성과는 크게 공무역이라는 견해와 사무역의 존재를 인정하는 견해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연구자마다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무역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개념상의 접근일뿐이고, 전근대 시기의 실제 교역에 있어서 이를 공무역과 사무역으로 명확하게 분류하는 것은 녹록지 않으며, 연구자의 개념 정의에 따라 본질적으로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무역을 인정하는 견해의 경우 문헌 사료상에서 ‘내군고인(內郡賈人)’이라고 지칭된 상인집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³¹ 그런데 최근 이러한 민간상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연구가 나와서 주목된다. 이에 의하면 한(漢)은 원칙적으로 민간상인이 출국(出國)하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다. 물론 일부 민간상인이 출국하여 교역한 사례가 보이지만 이들은 모두 ‘절출(竊出)’한 자들에 불과하며, 삼한(三韓)까지 와서 교역을 했던 자는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자여야 했기 때문에 한의 사절(使節) 이외에는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무역은 불가능했으며, 공무역에 가까운 사행무역(使行貿易)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김병

³¹ 『漢書』卷28, 地理志, “玄菟樂浪, 武帝時置 … 其田民飲食以籩豆, 都邑頗放效吏及內郡賈人, 往往以杯器食. 郡初取吏於遼東, 吏見民無閉臧, 及賈人往者, 夜則爲盜, 俗稍益薄.”

준, 2011a, 1406; 2011b; 2016; 2018a; 2019a; 2019c). 이성규 역시 중국은 일반적으로 해외 ‘이적(夷狄)의 귀의와 조공’을 환영하고 ‘은사(恩賜)’를 베풀었지만, 중국인의 관새(關塞) 출입은 엄격히 통제하였고, 특히 중요 전략 물자의 유출은 엄격히 엄금하였다고 지적하였다(2006: 123-124; 2007: 130-133). 결국 진·한제국의 출현 이후 교류의 목적은 상업적 이득보다는 제국의 안정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김경호, 2016: 129), 중앙정부의 원칙적 입장은 외교라는 공적인 업무를 제외한 국경 출입의 엄금이었다. 그렇다면 교역의 파생물이라 할 수 있는 화폐에 대해서도 이를 교역의 도구라기보다는 위세품, 혹은 정치적 교섭의 산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변군의 군현지배 강도에 대해서는 그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견해가 갈라져 있다. 필자는 1차 사료인 간독(簡牘)자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내군과 변군의 차이를 부정하는 견해를 따르고 있다(김병준, 2006; 2013; 2015). ‘군’이라는 행정 구역으로 편제된 이상 제국이 설정한 영역 안에 포섭된 것이며, 군현지배 질서에 구속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한제국을 일관하여 이적 지배에 대한 원칙이 폐기된 적은 없으며,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오히려 이적에 대한 직접 지배의 열망이 이적의 고속(古俗)을 인정하는 변칙적 공간인 변군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홍승현, 2009: 116-117).

다만 낙랑군의 존속 기간이 400년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종일관 동일한 강도의 군현지배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제국 자체의 중앙 집권력이 극적으로 이완되는, 즉 중국이라는 중심의 설정 자체가 미묘한 왕조교체기에는 지리적으로 격절된 변군에 대한 지배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즉, 전한의 멸망과 신의 성립과 소멸, 후한의 건국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변군인 낙랑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되는 것이 염사치(廉斯鎡)의 내속(來屬)기사이다.

A-1 왕망(王莽) 지황(地皇) 연간(20~23)에, 염사치가 진한(辰韓)의 우거수(右渠帥)가 되어 낙랑의 토지가 비옥하고 인민의 생활이 풍요하고 안락하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가서 항복하기로 작정하였다. 살던 부락을 나오다가 밭에서 참새를 쫓는 남자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말은 한인(韓人)의 말이 아니었다. [그 이유를] 물으니 남자가 말하기를, “우리들은 한인(漢人)으로 이름은 호래(戶來)이다. 우리들 1,500명

은 재목(材木)을 벌채하다가 한(韓)의 습격을 받아 포로가 되어 모두 머리를 깎여 노(奴)가 된 지 3년이나 되었다.”고 하였다. 염사치가 “나는 한(漢)의 낙랑에 항복하려고 하는데 너도 가지 않겠는가?” 하니, 호래는 “좋다.” 하였다. 그리하여 염사치는 호래를 데리고 출발하여 함자현(含資縣)으로 갔다. 함자현에서 군(郡)에 연락을 하자, 군은 염사치를 통역으로 삼아 금중(荅中)으로부터 큰 배를 타고 진한에 들어가서 호래 등을 맞이하여 데려갔다. 함께 항복한 무리 1,000여 명을 얻었는데, 다른 500명은 벌써 죽은 뒤였다. 염사치가 이때 진한에게 따지기를, “너희는 500명을 돌려보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낙랑이 만 명의 군사를 파견하여 배를 타고 와서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라고 하니, 진한은 “500명은 이미 죽었으니, 우리가 마땅히 그에 대한 보상을 치르겠습니다.” 하고는, 진한인(辰韓人) 1만 5,000명과 변한포(弁韓布) 1만 5,000필을 내어놓았다. 염사치는 그것을 거두어 곧바로 돌아갔다. 군에서는 염사치의 공의(功義)를 표창하고, 관책(冠幘)과 전택(田宅)을 주었다. 그의 자손은 여러 대를 지나 안제(安帝) 연광(延光) 4년(125)에 이르러서 복제(復除)를 받았다.³²

염사치의 내속기사는 매우 단편적인데, 위의 기사는 왕조교체의 상황에서도 낙랑군이 잘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로 언급된다. “樂浪土地美, 人民饒樂”을 볼 때, 낙랑은 주변의 원주민들에게 이상향이었을 뿐 아니라, 행정력과 군사력을 갖춘 관부(官府)의 모습이었다는 것이다(권오중, 2007: 68-70). 이후 진한(辰韓)의 행보를 보면 낙랑군의 요청에 노(奴)로 삼았던 한인(漢人)을 모두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상회하는 보상을 지불했다. 이를 보면 낙랑군의 권위 자체가 형해화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이 기사를 왕망 시기 군현지배의 이완이라는 측면에서 달리 생각해 볼 여지는 없을까?

우선 염사치가 내속했던 지황(地皇) 연간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흉노의 침략과 노략질이 심해지자 왕망은 정남(丁男)은 물론 사형수, 관리, 백성, 노

32 『三國志』卷30, 魏書 東夷傳 韓條, “至王莽地皇時, 廉斯鏹爲辰韓右渠帥, 聞樂浪土地美, 人民饒樂, 亡欲來降. 出其邑落, 見田中驅雀男子一人, 其語非韓人. 問之, 男子曰: 我等漢人, 名戶來, 我等輩千五百人伐材木, 爲韓所擊得, 皆斷髮爲奴, 積三年矣. 鏹曰: 我當降漢樂浪, 汝欲去不? 戶來曰: 可. 鏹因將戶來出詣含資縣, 縣言郡, 郡即以鏹爲譯, 從荅中乘大船入辰韓, 逆取戶來. 降伴輩尙得千人, 其五百人已死. 鏹時曉謂辰韓: 汝還五百人. 若不者, 樂浪當遣萬兵乘船來擊汝. 辰韓曰: 五百人已死, 我當出贖眞耳. 乃出辰韓萬五千人, 弁韓布萬五千匹, 鏹收取眞還. 郡表鏹功義, 賜冠幘田宅, 子孫數世, 至安帝延光四年時, 故受復除.”

비에 이르기까지 천하의 사람을 모아 ‘저돌희용(豬突豨勇)’이라 이름 붙이고 정예 병으로 삼았으며,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모든 재산의 30분의 1을 세수로 거두어들였다. 이에 더해 관리들의 가렴주구(苛斂誅求), 복잡한 금령(禁令), 황충(蝗蟲)과 가뭄의 피해로 인해 왕망이 정권을 잃기 전에 이미 천하의 호구가 반으로 줄었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³³ 『한서』에서 확인되는 왕망 시기는 염사치의 묘사처럼 “人民饒樂”한 상황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물론 낙랑군의 경우 고고학적 물질문화로 볼 때, 당시 경제적 번영기를 구가하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낙랑군이 지리적으로 격절된 변군이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이완이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번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³⁴

「낙랑군초원사년현별호구부(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簿)」 등의 자료를 보면 이미 초원(初元) 4년(기원전 45) 낙랑군이 한제국의 문서행정체제, 즉 제민지배체제(齊民支配體制)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호적(戶籍)의 파악은 제국을 유지시키는 세금수취의 근거라는 점에서 국가 통치의 바탕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은 진(秦)의 고과제도를 기초로 하여 관리를 평가했는데, 호구의 증감은 인사 평가의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였다. “호구의 증가가 다스림에 있어서 천하제일”이라는 순리(循吏) 황패(黃霸)의 언급은,³⁵ 호구의 파악이 행정의 핵심이

33 『漢書』卷99下, 王莽傳 第69下, “而匈奴寇邊甚. 莽乃大募天下丁男及死罪囚戍民奴, 名曰豬突豨勇, 以爲銳卒. 一切稅天下吏民, 訾三十取一, 縑帛皆輸長安. 令公卿以下至郡縣黃綬皆保養軍馬, 多少各以秩爲差. 又博募有奇技術可以攻匈奴者, 將待以不次之位.”; 『漢書』卷24下, 食貨志 第4下, “作貨布六年後, 匈奴侵寇甚, 莽大募天下囚徒人奴, 名曰豬突豨勇, 壹切稅吏民, 訾三十而取一. 又令公卿以下至郡縣黃綬吏, 皆保養軍馬, 吏盡復以與民. 民搖手觸禁, 不得耕桑, 繇役煩劇, 而枯旱蝗蟲相困. 又用制作未定, 上自公侯, 下至小吏, 皆不得奉祿, 而私賦斂, 貨賂上流, 獄訟不決. 吏用苛暴立威, 旁緣莽禁, 侵刻小民. 富者不得自保, 貧者無以自存, 起爲盜賊, 依阻山澤, 吏不能禽而覆蔽之, 浸淫日廣, 於是青徐荆楚之地往往萬數. 戰鬪死亡, 緣邊四夷所係虜, 陷罪, 飢疫, 人相食, 及莽未誅, 而天下戶口減半矣. 自發豬突豨勇後四年, 而漢兵誅莽.”

34 安史의 亂 이후 唐 제국의 번영이 참고될 수 있다. 안사의 난으로 인해 당 중앙정부의 지배력은 약화되었지만, 오히려 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로 인해 민간상인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적으로는 더욱 융성하였으며, 강남지방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이 당 후기 제국을 이끄는 중요 요소가 되었다. 한편 낙랑고분에서는 왕망정권기 기년명 漆器 등이 확인되는데(洪石, 2017: 23-30), 위세품을 제공하는 축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회유에 있었음을 고려해 본다면 이 시기 낙랑군의 경제적 번영에 대해서는 다각적 각도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35 『漢書』卷89, 循吏傳 第59, “戶口歲增, 治爲天下第一.”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엽사치의 내속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왕망 집권기인 지황 연간으로부터 3년 전, 한(韓)의 습격을 받아 무려 1,500명에 달하는 한인(漢人)들이 노(奴)가 되었다고 하였다.³⁶ 주목해야 할 점은 엽사치가 낙랑군의 남쪽 변경에 해당하는 함자현의 관리에게 보고하기 전까지, 군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년율령(二年律令)」의 호율(戶律)을 참고하면 한대에는 진대와 마찬가지로 매년 8월에 호적이 작성되었다(김병준, 2007: 145; 윤재석, 2010: 74-75). 문제는 3년이 흘렀다면 최소 2번 이상의 호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군에서는 대규모 한인(漢人)의 실종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파악했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된다. 엽사치의 고변(告變) 이후 낙랑군의 대응을 보면 전자의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제민지배체제의 근간이 수취를 위한 제민의 파악, 즉 호적 작성에 있었음을 염두에 둔다면 왕망정권기 군현 지배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삼국지』 「위략(魏略)」은 한(韓)과 낙랑군의 관계 시작을 설명하고 있다. 즉, 군현 설치 이후 단절되었던 관계가 엽사치의 활약으로 인해 재개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윤용구, 2004: 131). 또한 엽사치가 낙랑의 비옥함을 안 것은 ‘본 것’이 아니라 ‘들은 것(聞)’이었다. 그가 낙랑군을 직접 방문한 적은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엽사치는 낙랑을 대표하여 진한과 교섭을 담당한 통역관으로서 활약할 정도로 한어(漢語)에 능통했다. ‘역(譯)’의 자의(字意)와 함께, 엽사치 자신이 관책(冠幘)과 전택(田宅)을 사여 받고 엽사치의 공적이 후손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을 볼 때 그가 통역으로서 양측의 교섭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외국으로의 출입(出入)이 극히 제한되는 고대 사회에 있어서 외국어 가능자는 사신(使臣) 혹은 사행무역 안에 포섭된 상인으로 제한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한어(漢語) 습득은 낙랑군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 남부 출토의 왕망전을 낙랑군과 한반도 남부 정치체간

³⁶ 「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簿」를 참고하면 提奚縣의 경우 1,303口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해현이 낙랑군의 속현 중 가장 인구가 적었음을 고려하더라도, 1,500명은 하나의 縣에 편제될 수 있는 규모였다.

의 관계로만 설정하기는 어렵다. 해당 기사에서 보상 내용은 “辰韓萬五千人, 弁韓布萬五千匹”이었는데, 이를 볼 때 진한의 경제력이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⁷ 물론 해당 수량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이후 엽사치의 후손이 그의 공로로 인해 복제(復除)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 해당 내용 전체를 과장으로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복제의 제공은 율령과 작제(爵制)에 규정된 기준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기사에 적힌 수량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배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후 엽사치의 후손에게까지 배려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점에서 이 기사는 당시 한반도 남부 정치체의 경제력을 짐작케 해 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결국 엽사치의 내속 기사는 낙랑군이 한반도 남부 제소국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도, 동시에 군현민들의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군현체제의 이완도 함께 보여 준다. 그렇다면 한반도 남부에서 확인되는 왕망전을 낙랑군과 한반도 남부의 제소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왕망 정권과 한반도 남부 정치체의 직접 교섭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 『한서』 왕망전에서 확인되는 “대해(大海)를 건너 국진(國珍)을 바쳤다는 동이왕(東夷王)”은 누구일까?³⁸

37 『三國志』卷30, 魏書 東夷傳 高句麗條, “明年, 遂成還漢生口, 詣玄菟降. 詔曰: 遂成等桀逆無狀, 當斬斷菹醢, 以示百姓. 幸會赦令, 乞罪請降. 鮮卑濊貊連年寇鈔, 驅略小民, 動以千數, 而裁送數十百人, 非向化之心也. 自今已後, 不與縣官戰鬪而自以親附送生口者, 皆與贖眞, 縑人四十匹, 小口半之. 遂成死, 子伯固立. 其後濊貊奉服, 東垂少事.” 後漢 安帝는 고구려에게 노략질한 漢人 포로들을 돌려보낼 것을 명령하며, 그 대가로 贖錢 지불을 약속했다. 액수는 大人의 경우 縑 40필, 小人의 경우 그 절반에 해당하는 20필로 책정되었다. 엽사치 기사에서 약취된 1,500명의 한인들 중에서 이미 500명이 사망한 상태였다고 했는데, 사망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서 布 1만 5,000필이라는 수량(사망자 1인당 30필의 배상)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망자 500명에 대한 辰韓人 1만 5,000명의 代贖은 아무래도 숫자의 과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38 『漢書』卷99上, 王莽傳 第69上, “莽復奏曰: 太后秉統數年, 恩澤洋溢, 和氣四塞, 絕域殊俗, 靡不慕義. 越裳氏重譯獻白雉, 黃支自三萬里貢生犀, 東夷王度大海奉國珍, 匈奴單于順制作, 去二名, 今西域良願等復舉地爲臣妾, 昔唐堯橫被四表, 亦亡以加之.” 해당 내용은 단순히 이상적인 면모를 보여 주기 때문에 기사 자체의 사실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기사를 제외하고도, 『漢書』本紀나 列傳 등에서 黃支國이 犀牛를 바쳤다는 기사(“逮王莽輔政, 元始二年春, 黃支國獻犀牛.”)와 越裳氏가 白雉를 바쳤다는 기사(“元始元年春正月, 越裳氏重譯獻白雉一, 黑雉二, 詔使三公以薦宗廟.”)가 확인되는데, 奉獻 일시가 밝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공헌물 역시 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上奏의 東夷王 國珍 봉헌 기사를 근거없는 修辭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 특히 『漢書』卷28下, 地理志 第8下, “平帝元始中, 王莽輔政, 欲耀威德, 厚遺黃支王, 令遣使獻生犀牛.”의 기사에서 황지국의 봉헌을 왕망이 威德을 드러내고자 한 결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왕망

우선 『한서』에서 확인되는 ‘대해’의 용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 사서에서 ‘대해’가 특정 방위의 바다만을 가리키는 용어라면 문제 해결은 쉬워질 수 있다. 그러나 『한서』에서 확인되는 ‘대해’의 용례는 중국 대륙을 기준으로 서해(西海)와 남중국해(南中國海),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기준으로 동해(東海)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³⁹ ‘대해’가 중국을 비롯한 한반도와 일본열도 주변의 넓은 바다를 가리키는 범칭으로 사용되었다면, ‘대해’와 ‘동이’라는 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주체로서 우선 고구려와 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고구려의 경우 현도군을 비롯하여 육로로 왕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해’를 건너야 하는 특별한 정황은 찾아지지 않는다. 한편 동이왕을 일본의 왜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확인된다. ‘동이왕’을 왜왕으로 보는 근거는 ‘대해’를 건넜다는 것인데(張莉, 2013: 34-36),⁴⁰ 한반도 남부 역시 낙랑군과 직접 교통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주체이며, 서해 역시 ‘대해’가 될 수 있으므로, ‘도대해(度大海)’를 이유로 ‘동이왕’을 ‘왜왕’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한편 서해안의 연안항로를 이용한 한반도 남부와 낙랑군의 교섭에 대해 “‘대해’를 건넜다.”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어색할 뿐만 아니라, 상술한 바와 같이 당시 왕망 정권과 낙랑군의 관계, 낙랑군과 한의 관계 역시 해당 표현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정통성 확보를 위해 주변 諸國과의 관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황지국의 경우 漢武帝시기 조공기사(“自夫甘都廬國船行可二月餘, 有黃支國 … 自武帝以來皆獻見.”)와 왕망정권기 犀牛 봉헌 기사 이외에는 별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동이왕의 사례 역시 이례적이고 단속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³⁹ 山東省으로 지정되는 東萊郡의 위치를 고려할 때 “征和四年春正月, 行幸東萊, 臨大海.”, “東游東萊, 臨大海”의 대해는 서해를 지칭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漢武帝가 南越을 멸망시키고 설치한 9郡의 설명 주석에서 “二郡在大海中崖岸之邊. 出真珠, 故曰珠厓.”라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 珠厓郡이 현재 海南省에 지정되므로, 이때의 대해는 남중국해를 지칭한다. 또한 “東夷傳今挹婁地是也, 在夫餘之東北千餘里大海之濱.”, “魏略云倭在帶方東南大海中, 依山島爲國, 度海千里, 復有國, 皆倭種.” 등의 기사는 대해가 동해를 지칭하는 경우로 사용되고 있다.

⁴⁰ 張莉는 王充과 班固가 동시대의 인물로 서로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論衡』의 기사인 “成周之時, 越裳獻雉, 倭人貢暢”를 참고하여 『漢書』의 기사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두 기사의 내용은 시기가 전혀 다르며(周成王 vs 王莽), 현상한 물건 역시 다르다(暢 vs 國珍). 또한 각주 38)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월상씨의 雉 봉헌은 왕망이 輔政으로서 大司馬의 지위에 있었던 元始 元年에 재차 확인되는 내용이다. 이러한 점에서 變改의 이유가 밝혀지지 않는 한, 양자를 같은 기사로 등치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평양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북부와 중국의 고구려 영역에서는 왕망전의 비율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또한 왕망 시기 전체 정세나 염사치 내속 기사에 보이는 낙랑군의 상황으로 보아 낙랑군이 군현 단위의 범위를 넘어 한반도 남부의 제소국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한반도 남부에서 확인되는 왕망전은 한반도 남부 정치체와 왕망 정권의 직접적인 교섭 결과일 가능성이 남게 된다. 사천(泗川) 녹도(勒島)에서 확인되는 고대 국제무역항의 모습이나 일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한반도 서남부와 서일본의 교류 양상은 한반도 남부 정치체의 역량을 보여 준다. 최근에는 토기의 여러 속성을 분석하여 중국 군현 설치 이전 요동에서 한반도 남부를 거쳐 일본 오키나와를 연결하는 광역의 국제교역망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정인성, 2008; 2018).

아울러 위세품이 가지는 여러 성격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본디 위세품이란 사회 지배층이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특정 물품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위세품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이한상, 2007: 103). 물론 금관(金冠)과 같이 그 소재만으로도 가치를 지니는 경우에는 정치적 의미를 덧붙이지 않더라도 그 희소성 덕택에 가치를 유지한다. 그러나 화폐의 경우에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큰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화폐가 위세품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은 그것에 특정한 의미가 부가되었기 때문이다. 즉, 한반도 남부에서 확인되는 왕망전을 위세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왕망전에 ‘중국과의 교역’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⁴¹ 또한 이러한 점에서 왕망전의 위세품으로서의 가치는 정치적 중심지보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치를 가지는 교역로의 정치체에게 더 큰 의미가 있다. 다만 물건 자체만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지 않는 이런 종류의 위세품은 부가된 의미가 사라지는 경우 급격히 가치를 잃게 된다. 일반적으로 위세품은 신분적인 표현을 의미하므로 분묘 자료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왕망전의 경우에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한반도

⁴¹ 물론 왕망전이 符傳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외국 상인들이 중국 내지를 자유롭게 통행하며 상업활동을 전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송진, 2005: 111). 다만 왕망전의 용처에 관한 정보는 사행단과 함께 교역을 전개했던 집단들에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왕망전, 그중에서도 고액 화폐들은 위세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남부 해상 교역로의 패총유적 등에서 확인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에서의 출토 사례 역시 정치적 중심지가 아닌 해촌(海村)의 영역에서 출토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 남부 지역 및 일본열도의 왕망전은 해상 교역을 담당했던 특정 집단들에게, 단기간에 한해서 의미 있는 위세 품이었던 것이다.

고대 상업사와 관련된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면 고대의 화폐에 대해 경제적 유통의 매개보다는 권력의 존재와 이를 가시화해 주는 위세품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문헌상에서 왕망전이 부전(符傳)으로서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 의미를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그렇다면 『한서』에서 확인되는 ‘동이왕’은 서해를 건너 중국 본토에 도착한 한반도 남부 정치체의 수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물론 교섭을 통한 외래 물품의 획득,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는 해양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왔던 일부 집단에 의해 주도되었을 것이며,⁴² 문헌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한 정기적이라기보다는 단발성의 교역에 그쳤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중국을 비롯한 다른 정치체들과의 교섭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 연사치 기사에서 확인되는 배상액의 규모에서 한(韓)의 경제력을 짐작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한(韓)의 습격으로 인해 낙랑의 군현인들이 약취되는 상황 역시 한(韓)의 군사력을 전제하는 것이다. 농기류보다 무기류가 압도적으로 많이 확인되는 낙랑 고분의 부장품 출토 양상은 변군 설치의 1차적 목적이 주변 이민족에 대한 군사적 통제에 있었음을 보여 주는데, 이러한 낙랑군에 대한 공격은 한반도 남부 정치체의 성장을 보여 준다. 당시 낙랑군의 군현 지배체제가 동요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중국의 군현을 공격한다는 계획 자체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왕망 정권의 경우 국내적으로는 고제(古制)의 확립을 통한 왕권 강화를 추구

⁴² 이러한 점에서 창원 다호리 1호분의 사례가 주목된다. 기원전 1세기 후반으로 비정되는 해당 분묘에서는 武器類와 함께 斧, 削刀 등의 문방구류가 함께 출토되었는데, 공반하는 중국 현대의 유물(五銖錢·青銅帶鉤·馬鐙·星雲文鏡)을 고려할 때 피장자는 漢 또는 樂浪 등과 대외적인 교섭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다호리 유적에서 출토된 많은 철기는 이것이 중국과의 주요 교역물이었음을 보여 준다(이건무, 1992: 9-10; 2008: 170-172; 최성락, 2009: 298-299).

하면서, 국외적으로는 왕권 강화 및 정통성 확보를 위해 군사적으로 이민족을 압박하는 정책을 선택했다. 물론 염사치 내속 기사에 보이는 낙랑군의 상황이 군현 지배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왕조교체기를 거치면서 기존의 군현지배가 다소 이완되었고, 흉노와의 전쟁 수행 과정에서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동이제족의 반발이 시작되었다. 특히 낙랑에는 독자적인 철관(鐵官)이 존재하지 않았고, 군(郡)에 의한 일괄 구입과 분배 역시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이 주목된다(이성규, 2006: 105-106). 이러한 상황에서 낙랑군의 율타리아자, ‘철’이라는 군사물자의 공급처로서 한반도 남부의 정치체가 주목될 가능성이 있진 않을까? 한반도 남부지역의 철기 유입에 대해서는 기원전 3세기~기원전 2세기가 지적되고 있으며,⁴³ 이후 한(韓)·예(濊)·왜(倭)를 비롯하여 낙랑군과 대방군을 상대로 철을 수출했다.⁴⁴ 즉, 흉노 및 고구려로 대표되는 동이 제민족과의 전쟁 수행, 그리고 안정적이지 못한 낙랑군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철이라는 군수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반도 남부의 정치체가 주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 철의 경우 군수물자로서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농기구 등의 생활용품으로서의 중요성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부터 한은 철을 국가가 전매(專賣)하는 정책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원칙적으로 고구려를 담당하는 군현은 현도군이지만, 왕망의 강압책에 대한 동이제족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민족 통제라는 기본 기능을 제대로 수

⁴³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도에서 철기문화의 시작은 기원전 4세기 무렵 연나라의 철기문화가 유입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나(한국고고학회, 2010: 143-145), 한반도 남부의 경우는 기원전 3세기~기원전 2세기대 이전으로 상향하기 어렵다. 문제는 철기에 대한 정보와 철기의 유입, 그리고 기존의 주조기술을 토대로 한 ‘재지적 철기’의 생산 시점인데, 동남부의 경우 기원전 1세기대 낙랑군이 설치된 시점, 서남부의 경우 이보다 조금 이른 시기였다고 추정된다(김상민, 2013: 29, 33-34). 이현혜는 漢 郡縣이 자신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철 자원이 풍부한 특정 지역의 야철기술 개발에 적극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1976: 16-17). 다만 왕망전의 분포와 철의 생산지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교역의 분화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물품의 생산지와 교역지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안 지역의 경우 물산을 모아 교역을 담당하는 중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고, 그 경우 교역지에서는 왕망전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위세품으로의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직접 교역을 담당하지 않는 물산의 생산지에서는 그 자체만으로 가치를 가지는 물품에 비해 위세품으로서의 왕망전의 가치가 적었을 것이다.

⁴⁴ 『三國志』卷30, 魏書 東夷傳 韓條, “國出鐵, 韓濊倭皆從取之. 諸市買皆用鐵, 如中國用錢, 又以供給二郡.”

행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망 정권에게 낙랑군의 안정적인 운영은 군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고구려의 후방을 견제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했을 텐데, 낙랑군의 설치 배경 자체가 흉노의 좌비(左臂)를 끊고자 했던 것이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⁴⁵ 특히 민중왕(閔中王) 4년(47) 고구려 잠지락부(蠶支落部)의 대가(大家)가 만여 구(口)를 이끌고 낙랑군에 내숙한 사례는 낙랑군이 고구려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⁴⁶ 결국 낙랑군의 존재 자체가 고구려의 후방을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일정 정도 수행했고, 그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 낙랑군 자체가 안정될 필요가 있었는데, 군현 지배가 이완되어 가는 상황에서 본토와 지리적으로 격절된 낙랑군의 안정은 한반도 남부를 포함한 주변 이민족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가능했을 것이다.

한편 왕망 정권이 한반도 남부의 정치체를 주목한 이유는 상술한 현실적 배경과 함께 이상적 목적 역시 내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조공은 사이(四夷)들이 천자(天子)의 덕(德)에 감화되어 중국이 설정한 세계질서에 자발적으로 복속한다는 것을 보여 주며, 이로 인해 황제는 자신의 지위를 계승화할 수 있었다. 조공이 사실상 상업 행위에 불과했음을 간파한 중국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⁴⁷ 막대한 비용을 들여 조공국을 확보하고자 했던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소위 이상적인 형태의 전근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심과 그 주변의 소국, 즉 비대칭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왕망정권기 기존의 관계를 무리하게 변경하면서까지 흉노를 압박한 것은 중국의 우위를 전제로 한 비대칭적 세계질서 구현의 욕망이었다.⁴⁸ 특히 왕망의 경우 주공(周公)을 자처하며 고제(古

45 『漢書』卷73, 韋賢傳 第43, “東伐朝鮮, 起玄菟樂浪, 以斷匈奴之左臂.”

46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閔中王 4年條, “冬十月, 蠶支落部大家戴升等一萬餘家, 詣樂浪投漢.”; 『後漢書』卷85, 東夷列傳 高句麗條, “建武二十三年冬, 句驪蠶支落大加戴升等萬餘口詣樂浪內屬.”

蠶支落部の 낙랑군 내숙에 대해서는 위의 기사가 전부이기 때문에 내숙의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고구려에 대한 낙랑군의 離間計의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47 『漢書』卷96, 西域傳 第66, “今悔過來, 而無親屬貴人, 奉獻者皆行賈賤人, 欲通貨市買, 以獻爲名, 故煩使者送至縣度, 恐失實見欺. 凡遣使送客者, 欲爲防護寇害也.”

48 始建國 元年(9) 왕망은 五威將을 동서남북의 각국에 파견하였다. 이 중 북쪽의 흉노에는 五威將 王駿과 장수 6인을 파견하여, 漢 印綬의 문장을 바꾸고, 匈奴單于‘麗’를 ‘新’匈奴單于‘章’으로 고쳤을 뿐만 아니라, 흉노선우의 이름을 ‘降奴服于’로 바꾸었다. 이는 흉노의 지위를 재조정하고자 하

制)로의 회귀를 목표로 했으며, 역성혁명을 통한 왕조 교체라는 점에서 정통성의 문제를 안고 있었기에 조공국의 확보는 정권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남부의 정치체는 고구려를 견제할 수 있는 낙랑군의 안정과 직결되는 것이었으며, 한편으로는 왕망이 추구했던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 구현에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었다.

즉, 한반도 남부에서 확인되는 왕망전은 동아시아라는 거시적인 대외관계망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정치체들은 한반도 남부라는 지역적 한계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를 구성하는 집단들과 광범위하게 얽혀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사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반도 남부에서 출토되는 한식(漢式) 유물에 대해 낙랑군과의 관계만을 설정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한반도 정치체의 성장에 있어서 낙랑군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다. 낙랑군에서 비롯된 행정 체계는 삼한은 물론, 그 이후 삼국의 정치적 성장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미쳤다. 최근 한반도에서 확인되는 금석문과 목간(木簡)이 중국의 간독 문서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지적은(김병준, 2018b; 2019b), 삼국의 성장에 있어서 낙랑군의 기여를 인정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왕망 정권이 한반도 남부의 정치체와 직접 교섭하기보다는 낙랑군에 대한 군현지배의 강도를 올리는 방도를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왕조(王調)의 반란 기사가 참고된다.⁴⁹

관련 자료가 소략하여 토인(土人) 왕조가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왕망의 고압적인 대외정책과 왕조교체기의 혼란한 상황에서 고조선계 토인집단의 반발이라고 해석한 견해가 주목된다(오영찬, 2006: 155-158).⁵⁰ 물론 왕조교체기라는 유례없는 혼란 상황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겠지만,

는 시도였다.

⁴⁹ 『後漢書』卷1下 光武帝本紀, “初, 樂浪人王調據郡不服. 秋, 遣樂浪太守王遵擊之, 郡吏殺調降.”; 『漢書』卷76 王景傳, “王景字仲通, 樂浪誚郡人也. 八世祖仲, 本琅邪不其人. 好道術, 明天文. 諸呂作亂, 齊哀王襄謀發兵, 而數問於仲. 及濟北王興居反, 欲委兵師仲, 仲懼禍及, 乃浮海東奔樂浪山中, 因而家焉. 父閔, 爲郡三老. 更始敗, 土人王調殺郡守劉憲, 自稱大將軍樂浪太守. 建武六年, 光武遣太守王遵將兵擊之. 至遼東, 閔與郡決曹史楊邑等共殺調迎遵.”

⁵⁰ 이 밖에도 王調 반란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를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山東, 遼東 등의 동방

사료만을 따라가 본다면 6년여 동안 왕조가 “據郡不服”하는 상황이 제어되지 못했다.⁵¹ 이런 점에서 왕조의 반란은 왕망정권기 동안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낙랑군의 군현지배가 이완된 모습과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면 이반(離叛)할 수 있는 변군으로서의 낙랑군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로 이해할 수 있다.

한반도의 중국 문물 수용에 있어서 낙랑군이 유일한 창구일 수는 없다. 때로는 험준한 산줄기로 가로막힌 육로 교통이 더 큰 장애물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바다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아니라 서로를 연결해 주는 ‘통로’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도군이 약화된 상황에서 이민족 강압정책으로 인한 동이 제민족의 반발을 목도한 왕망 정권은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고구려의 후방에 위치한 낙랑군에 우선 집중했을 것이나, 낙랑군의 군현 지배는 다소 이완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왕망의 입장에서는 지리적으로 격절되어 있는 변군인 낙랑군을 보호하면서도 견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한반도 남부의 정치체를 고려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철이라는 군수물자를 확보하고 있었던 한반도 남부 정치체는 왕망 정권에게 매력적인 교섭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더 많은 조공 사절의 확보는 천자를 중심으로 한 비대칭적 세계질서를 구상했던 제국의 이상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 남부에서 확인되는 왕망전은 동아시아의 다층적인 국제관계망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세력의 흥기 및 흥노와의 관계에서 촉발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권오중, 2007; 2008: 460-464)와 建武 6년(30) 光武帝의 군비축소책으로 인한 변군의 군사기지화에 대한 반발로 이해하는 견해(홍승현, 2015)가 제출되었다.

⁵¹ 왕망은 地皇 4년(23) 10월 3일 杜吳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玄漢 更始帝가 後漢의 光武帝에 의해 패배한 것은 25년의 일이다. 『漢書』 王景傳의 ‘更始敗’의 시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경시제가 赤眉軍에게 長安을 탈취당한 25년 9월을 기준으로 삼는다(홍승현, 2015: 114-115). 문헌 사료대로 25년 9월을 그 시점으로 삼는다면, 왕조의 반란은 광무제가 낙랑태수 王遵으로 하여금 반란을 평정하게 한 30년까지 6년간 지속된 것이 된다.

V. 맺음말

본 논문은 한반도 남부에서 출토되는 왕망전이라는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 1세기 초 흉노, 왕망의 신(新), 고구려, 낙랑군, 한반도 남부의 관계를 동아시아 국제관계사라는 개념으로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고대 화폐의 성격에 대해서는 크게 경제적 교역의 산물이라는 관점과 정치적 교섭의 산물인 위세품으로 해석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한반도 출토 화폐의 경우 발견된 수량이나 공반된 유물, 출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자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한반도 남부에서 출토되는 왕망전을 정치적 교섭의 결과로 해석해야 함을 보여 준다. 특히 한반도 남부 출토 왕망전의 경우 주조 기간이 극히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량이 확인되는데, 한반도 북부나 중국 동북부의 상황과 비교할 때도 이례적이다. 정확한 성격을 비정할 수 없는 거문도 오수전을 제외한다면, 700년이 넘게 사용된 오수전보다 더 많은 양이 확인되며, 전한과 신의 변군으로서 제국의 군현지배 틀 안에 속해 있던 낙랑군에서 발굴된 수량을 상회한다는 것은, 한반도 남부 출토의 왕망전이 낙랑군과의 관계 속에서 파생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기존의 연구들은 염사치 내속 기사를 통해 왕조교체기라는 혼란한 시기에도 낙랑군의 군현 지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이해하였다. 필자 역시 기본적으로 변군 역시 내군과 마찬가지로 군현지배의 틀 속에서 운영되었다는 입장에서 있으며, 특히 고대의 군현지배는 근대적 의미의 식민(植民)이 아닌 당대를 움직이던 문화적 표준 그 자체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지배의 강도가 시종일관 한결같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염사치의 내속 기사를 새롭게 해석한다면, 낙랑군에 대한 왕망 정권의 군현지배가 다소 이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비단 낙랑군이 변군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기간에 왕조가 교체되는 혼란한 시대 환경의 결과였다.

이러한 점들은 한반도 남부에서 확인되는 왕망전의 유입 주체를 낙랑군 혹은 후한이라고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한반도 남부 출토의 왕망전을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한 왕망 정권과 한반도 남부의 정치적 교섭의 결과로 이해하였다. 특히 왕망전이 부전(符傳)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정치적 교섭과 경제적 교류를 떼어낼 수는 없다. 왕망 정권은 낙랑군을 보호하면서도 견제하기 위해 철이라는 군수물자를 확보하고 있었던 한반도 남부의 정치체를 교섭의 대상으로서 고려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더 많은 조공국의 확보라는 제국의 이상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한서』의 대해(大海)를 건너 국진(國珍)을 바쳤다는 동이왕(東夷王)은 중국과의 교섭을 주도했던 한반도 남부 정치체의 주장일 가능성이 있다.

투고일: 2022년 2월 14일 | 심사일: 2022년 3월 21일 | 게재확정일: 2022년 3월 30일

참고문헌

『三國史記』

『漢書』

『後漢書』

『三國志』

『宋史』

『資治通鑑』

강종훈. 2020. “『삼국사기』 초기기록에 반영된 중국계 原典 사료의 讀法: 고구려본기 유리왕 31년조 기사의 검토를 중심으로.” 『대구사학』 140, 1-25.

권오중. 2002. “漢과 高句麗의 關係.” 『고구려연구』 14, 241-259.

_____. 2007. “樂浪 王調正權 成立의 國際的 環境.” 『역사학보』 196, 61-102.

_____. 2008. “낙랑군 역사의 전개.” 『인문연구』 55, 449-474.

권옥택. 2018. “韓半島·日本 출토 韓代화폐의 用途變化: 기원전후의 變化를 中心으로.” 『영남·구주고고학회 제13회 합동고고학대회 자료집』, 영남고고학회.

_____. 2019. “한반도 남부·일본열도 출토 漢代 화폐와 용도: 오수전·왕망전을 중심으로.” 『嶺南考古學』 84, 5-29.

김경칠. 2008. “金屬貨幣로 본 對外交流.” 『湖南地方 原三國時代 對外交流에 대한 研究』, 공주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김경호. 2016. “競爭하는 貨幣: 秦·漢初 社會 性格의 異解를 中心으로.” 『중국고중세사

- 연구』 39, 121-160.
- 김광수. 1983. 『고구려 古代 集權國家 成立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미도리·조연태·이양수. 2020. “해남 흑천리 마당 4호 토광묘 출토 화천의 보존처리와 고고학적 분석.” 『박물관 보존과학』 24, 37-54.
- 김병준. 2006. “중국고대 簡牘자료를 통해 본 낙랑군의 군현지배.” 『역사학보』 189, 139-173.
- _____. 2007. “樂浪郡 初期의 編戶過程과 ‘胡漢稍別’: 『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多少口』木簡을 단서로.” 『목간과 문자』 창간호, 139-186.
- _____. 2011a. “敦煌 懸泉置 漢簡에 보이는 한대 변경무역: 삼한과 낙랑군의 교역과 관련하여.” 『한국출토 외래유물: 초기철기~삼국시대』,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_____. 2013. “秦漢帝國의 이민족지배: 部都尉 및 屬國都尉에 대한 재검토.” 『역사학보』 217, 107-154.
- _____. 2015. “낙랑군 동부도위 지역 邊縣과 군현지배.” 『한국고대사연구』 78, 139-183.
- _____. 2018a. “문헌기록으로 본 고대 산동성과 한반도의 교류: 언제부터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한중교류의 관문, 산동: 동아시아 실크로드 이야기』, 한성백제박물관.
- _____. 2018b. “월성 해자 2호 목간 다시 읽기: 중국 출토 고대 행정 문서 자료와의 비교.” 『목간과 문자』 20, 155-183.
- _____. 2019a. “고대 동아시아의 해양 네트워크와 교역.” 『가야가 만든 고대 동아시아 네트워크』, 국립중앙박물관.
- _____. 2019b. “포항 중성리 신라비 다시 읽기: 중국 고대 행정문서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고대사연구』 96, 85-132.
- _____. 2019c. “고대 동아시아의 해양 네트워크와 使行 교역.” 『한국상고사학보』 106, 109-136.
- 김상민. 2013. “한반도 남부지역 철기문화의 유입과 전개과정: 연계·한식철기의 유입연대를 기준으로.” 『고고학지』 19, 49-87.
- 김창석. 2013. 『한국 고대 대외교역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한규. 1982. 『中國古代의世界秩序研究』, 일조각.
- 김효진. 2020. “高句麗의 對新 관계 전개와 高句驪候.” 『한국고대사연구』 99, 205-232.
-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 박노석. 2015. “고구려의 발전과 현도군 책구루의 변화.” 『전북사학』 46, 31-51.
- 박선미. 2010. 『고조선과 동북아의 고대 화폐』. 학연문화사.
- _____. 2013a. “高句麗遺蹟 출토 화폐 검토.” 『고구려발해연구』 47, 107-134.
- _____. 2013b. “완충교역모델에 대한 이론적 검토: 위만조선의 교역을 복원하기 위한 試論.” 『“동아시아의 문명교류(IV) 고조선·위만조선과 동아시아의 고대문화”』.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
- 박지희. 2018. “高句麗地域 出土 外來遺物 研究.”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 박찬규·문성휘. 2021. “고구려후 ‘騶’ 재고.” 『백산학보』 121, 161-178.
- 송기호. 2017. “문헌사와 고고학의 만남을 위하여.” 『동아시아에서의 한국 상고사』(한국 상고사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발표집). 한국상고사학회.
- 송진. 2005. “漢代 通行證 制度和 商人의 移動.” 『동양사학연구』 92, 113-175.
- _____. 2020. 『중국 고대 경계와 그 출입』.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여호규. 2007. “고구려 초기 對中戰爭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 『동북아역사논총』 15호, 7-56.
- _____.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 오영찬. 2006. 『낙랑군 연구』. 사계절.
- 王培新. 2008. “樂浪文化的 屬性和 高句麗 墓制에 對한 影響.” 『茶戶里 遺蹟 發掘 成果와 課題(昌原 茶戶里 遺蹟 發掘 20周年 國際學術 심포지엄)』. 국립중앙박물관.
- 劉莉·陳星燦 著. 심재훈 역. 2006. 『중국 고대국가의 형성』. 학연문화사.
- 윤용구. 2004. “三韓과 樂浪의 교섭.” 『한국고대사연구』 34, 125-144.
- _____. 2006. “高句麗의 흥기와 幘溝婁.” 『고구려의 역사와 대외관계』. 서경문화사.
- _____. 2008. “현도군의 근현 지배와 고구려.”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윤재석. 2010. “진한대 호구부와 그 운영.” 『낙랑군 호구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이건무. 1992. “茶戶里遺蹟 出土 붓(筆)에 대하여.” 『考古學誌』 4, 5-29.
- _____. 2008. “茶戶里 遺蹟 發掘의 意義.” 『갈대밭 속의 나라, 茶戶里: 그 발굴과 기록』. 국립중앙박물관.
- 이성규. 2006. “중국 근현으로서의 낙랑.” 『낙랑문화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07. “고대 동아시아 교류의 열림[開]과 닫힘[塞].” 『동아시아 경제문화 네트워크』. 태학사.
- 이성제. 2011. “玄菟郡의 改編과 高句麗: ‘夷貊所侵’의 의미와 郡縣의 對應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64, 285-322.

- 이주현. 2014. “皇南大塚 南墳 出土 銅錢의 性格과 曆年代.” 『신라문화』 43, 53-72.
- 이준성. 2011. “고구려 초기 涓奴部の 쇠퇴와 왕권교체.” 『역사와 현실』 80, 19-50.
- 이한상. 2007. “威勢品으로 본 古代國家의 형성.” 『제3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자료 문』.
- 이현혜. 1976. “三韓의 「國邑」과 그 成長에 대하여.” 『역사학보』 69, 7-9.
- 임중혁. 1995. “王莽의 개혁과 평가.” 『동양사학연구』 51, 1-82.
- 정인성. 2008. “瓦質土器 樂浪影響說의 검토.” 『嶺南考古學』 47, 5-44.
- _____. 2018. “원사시대 동아시아 교역시스템의 구축과 상호작용: 貿易陶器 ‘白色土器’의 생산과 유통을 중심으로.” 『원사시대의 사회문화변동』, 진인진.
- 지건길. 1990. “南海岸地方 漢代貨幣.” 『昌山 金正基博士 華甲記念論叢』, 昌山金正基博士 華甲記念論叢 刊行委員會.
- 洪石 지. 김봉근 역. 2017. “낙랑 칠기 연구.” 『중국 동북지역 고고학의 최신 연구 성과』, 한국상고사학회.
- 최성락. 2009. “東아시아에서의 茶戶里遺蹟.” 『考古學誌』 特輯號, 297-310.
- 홍승현. 2009. 『중국과 주변: 중국의 확대와 고대 중국인의 세계 인식』, 해안.
- _____. 2015. “後漢時期 邊郡동치의 변화와 樂浪郡: 王調 반란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61, 109-143.
- 한국고고학회. 2010. 『한국 고고학 강의』, (주)사회평론아카데미.
- 石母田正. 1971. “日本の古代國家.” 『石母田正著作集』 3. 岩波書店.
- 井上秀雄. 1983. “「史記」·「漢書」의 東夷王者觀.” 『朝鮮學報』 103, 1-37.
- 山田勝芳. 2000. 『貨幣の中國古代史』, 朝日新聞社.
- 後藤眞. 2003. “總括: 論点的整理と研究の展望.” 『東アジアと日本の考古學III: 交流と交易』, 同成社.
- 武末純一. 2009. “三韓と倭の交流: 海村の視点から.”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51, 285-306.
- 塩屋勝利. 2011. “中国出土王莽錢に関する覚書(下).” 『季刊邪馬台国』 111, 151-177.
- 張莉. 2013. “「倭」(倭人)について.” 『立命館白川静記念東洋文字文化研究所紀要』 7, 33-52.
- 古澤義久. 2011. “東北アジアからみた原の辻遺跡出土中国貨幣の諸様相.” 『長崎県埋蔵文化財センター研究紀要』 第1号, 25-47.
- _____. 2015. “長崎県の弥生時代遺跡出土中国貨幣.” 『ロード・オブ・ザ・コイン-弥生時代中国貨幣からみる交流(長崎県埋蔵文化財センター東アジア國際シンポジウ

- ム)』. 長崎県埋蔵文化財センター.
- 金秉駿. 2016. “中國古代における對外貿易のかたち-敦煌懸泉置漢簡を手掛かりとして.” 『東方學報』91, 530-550.
- 耿鐵華. 2002. 『中国高句麗史』. 吉林人民出版社.
- 高英民·王雪農. 2008. 『古代貨幣』. 文物出版社.
- 高一萍. 2020. “以海昏侯墓考古发掘管窥西汉中期经济.” 『通化师范学院学报』41-7, 92-100.
- 金少英. 1986. 『漢書食貨志集釋』. 中華書局.
- 李大龙. 2003. “关于高句麗侯驍的几个问题.” 『学习与探索』2003-5, 28-31.
- 李爽. 2017. “高句麗与两汉关系研究.” 『学问』2017-1, 28-31.
- 朴灿奎. 2000. 『三国志·高句麗傳研究』. 吉林人民出版社.
- 蕭清. 1984. 『中國古代貨幣史』. 人民出版社.
- 张诚. 1993. “秦汉币制改革略论.” 『郑州大学学报』1993-2, 15-21.
- 中國科學院 考古研究所 編. 1959. 『洛陽燒溝漢墓』. 科學出版社.
- Kim, Byung-Joon. 2011b. “Trade and Tribute along the Silk Road before the Third Century A.D.” *Journal of Central Eurasian Studies* 2, 1-24.
- Polanyi, Karl. 1963. “Ports of Trade in Early Societies.”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23(1), 30-45.

Abstract

Southern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Centering on the Distribution of Wang Mang's Coin

Ji Hee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Centering on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history in East Asia, this thesis examines the relationship among Xiongnu, Xin, Goguryeo, Nakrang commandery, and the polities o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Wang Mang's coin excavated from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early 1st century. Despite the extremely short period of use, a relatively large quantity of Wang Mang's coin has been confirmed. This is a very unusual quantity in comparison to that of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or northeastern China. The conflict between Goguryeo and the Wang Mang regime derived from the war of Wang Mang regime-Xiongnu. In such conflict, it is possible that the Wang Mang regime paid attention to the polities of the southern Korean Peninsula as its potential alliances. As a result of the upheaval that led to the fall of Western Han and the establishment and collapse of Xin, political control over Nakrang commandery's was relaxed. In this situation, the southern polities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had secured military supplies such as iron, would have been an attractive target of negotiation for the Wang Mang regime. In addition, securing tribute envoys was also the lofty ideal of an empire that envisioned an asymmetric world with the emperor at its peak. In this respect, it is assumed that the king of Dongyi, who paid the national treasure across the Great Sea as tribute in the Book of Han,

was likely to be the head of the southern Korean Peninsula's polities that led negotiations with China. Wang Mang's coin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shows a multi-layered international network in East Asia in the early 1st century.

Keywords | Wang Mang's coin, Xin, Goguryeo,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Nakrang commandery